

2005년 주요종단 결산

올 한해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은 수행체계 확립과 교육강화, 조직확대 등 내실 다지기에 치중했다. 또 해외교류와 대북지원 등 폭넓은 대외사업에 전개하기도 했다. 한해동안 종단들의 활동상을 되짚어본다.

수행체계 확립 등 내실다져

간화선 대중화·사이버포교 활성화 박차

조계종

올해 조계종의 가장 큰 변화는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과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에 꼽을 수 있다.

법장 스님은 현직 총무원장 최초로 미국과 북한을 방문했다. 또 종교 지도자 최초로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9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원적이 들었다.

이어 지난 10월 치러진 32대 총무원장 선거 결과 지관 스님이 165표를 얻어 146표를 얻은 정련 스님을 19표 차로 따돌리고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에는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공사계약해지, 관련 종무원 징계 및 해임 등이 이뤄졌지만 불씨는 잦아들지 않았다. (월간중앙)이 9월 호에서 불교중앙박물관 문제를 포함해 4대 의혹을 제기했지만, 8월호에 담긴 불교협회 내용 때문에 참회할 하기도 했다.

또 불교환경의제21 확정, 스리랑카 복지센터 부지 확보,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발족 등이 이뤄졌으며, 작년의 대중전 박원에 이어 신계사 만세루, 산신각, 요사채 불사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원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포교원은 11월 23일 '간화선 기본 수행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간화선 대중화 작업에 들어갔다. 포교원은 또 10월 21일에는 청소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11월 3일에는 대학생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발족하는 등 계층별 간화선 포교준비에 주력했다.

또 전세계 네티즌이 볼 수 있는 조계종 국제사이트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예불을 올릴 수 있는 신개념 포교시스템 사이버 법당 '108월드닷컴'을 선보이는 등 사이버 포교도 활성화했다. 또 인터넷상에 잘못된 개제된 불교지식을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했다. 이로써 효과적인 군포교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은 한국불교에 큰 충격이었다. 특히 법장 대종사의 유훈에 따라 시신과 장기가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되어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사진은 법장 대종사의 법구 이운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버포교 활성화 △군종특별교구 출범 등에 주력했다.

교육원의 올해 최대 이슈는 '승가교육 제도개선추진위원회(승개추)' 활동과 출가연령을 만 50세 연장이었다. 10월에는 많은 종도들의 관심속에 추진됐던 승개추 활동이 △기초(행자)교육 2년 △기초교육 4년 △전진교육 5년 안을 골자로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됐다. 승개추의 제도 개선안은 1995년부터 시작된 현 교육체제를 바꿔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002년 일부 고령 출가자들이 수행풍도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만40세로 제한됐던 출가연령도 만50세로 재조정됐다. 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공모전도 올해 처음 시행돼 운문사 종플 스님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만 불광산사가 운영하는 미국 LA사태대에는 군후 스님을 비롯해 석·박사과정 유학생 4명을 첫 파견했다.

평택으로 총무원을 옮긴 법상종은 올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단을 법인화해 합리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봉안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

원용종은 해외불교 돕기 사업을 꾸준히 벌여나갔으며, 불입종은 1사찰 1봉사단체를 결성하는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나갔다. 보문 원호 법률 본원 대승 열반 여래 대각종도 종단역량 결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한 종단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사찰 신도회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총지종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올해 초부터 시범적인 불단 장입이 실시됐으며 6월 무렵 사원 내 불상 봉안을 추진하다 내부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불상봉안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한편, 오랫동안 개원이 미뤄졌던 사원들이 문을 열어 총지종은 지역포교 기반을 한층 다져나갔다.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 불교문화전승관 착공

태고종

종단의 체질을 개선해 힘있고 믿음주는 종단을 표방했던 태고종은 올해 동방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고, 태고종립 방장 추대, 불교문화전승관 건립 착공식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태고종립 활성화. 11월 10일 신촌 불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9차 정기중앙총회에서 제23대 총무원장에 재임된 윤산 스님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태고종립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하고 선암사 중앙유원(유원장 수진) 설립 등 종립의 사격을 갖췄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비구니계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태고종 비구니회는 1월 31일 서울 신촌 불원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경기도 이천 무량사 주지 여초 스님이 선출됐다. 비구니회는 교구총무원별로 매달 비구니 모임을 상설화 하고, 전국 분원장이 참가하는 정기총회와 초청 강연회도 분기마다 여는 등 조직 및 교육강화 위주의 활동에 주력했다.

태고종은 종단차원에서 비구니 전문강원도 10월 울산 보덕사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식 및 정상욱 총장 취임식 장면.

에 설립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파주 범문사 강원이 폐쇄된 후 선암사 강원에 더부살이를 한 뒤 10여년 만에 설립된 강원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3월 14일 개교한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는 전통문화와 동양사상을 양지로 끌어내며, 내년 입학정원을 200%나 늘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여타 대학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문화재 발굴로 잠시 주춤했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식이 9월 29일 서울 사간동 불사현장에서 봉행돼 내년말이면 완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해 종단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수했던 신용카드 제조업체인 (주)에이엠에스를 매각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북지원·해외교류 활기 호스피스협회 결성

천태종

천태종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의 핵심은 대북지원과 해외교류였다. 천태종은 3월 29일 북한의 개성 영통사북원위원회에 농사용 비닐 100톤과 목욕 1만그루 등 16번째 대북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10월 31일에는 폐허된지 500년만에 개성 영통사 낙성식을 거행했다.

천태종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비누공장 합작설립과 석재광산 개발 등 남북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고려 천태종의 본산이었던 개성 송산 서남 기슭에 위치했던 국청사 복원을 추진하고있다.

해외교류 사업의 경우 몽골과 파키스탄이 두드러진다. 4월 26일 몽골 국립대에서 박사과정 9명과 석사과정 12명 등 21명에게 장학금 5,000불을 전달한 천태종은 수도 울란바토르 2만4000여명의 부



파키스탄 돕기 불교-이슬람 합동위원회에서 성금전달 모습.

지에 사찰을 건립하고 있다. 또 천태종은 10월 덴마크 고광사 불불식을 거행했으며, 11월부터 지진으로 발생한 파키스탄 지역 고아들을 돕는 '1가정1고아돕기 결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천태종은 호스피스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니르바나호스피스협회를 결성했으며, 해외 입양아 부모찾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불교문화복지운동 전개 종단 부동산 개발 나서

진각종

5월 20일 회장 정사가 제 2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진각종은 불교문화복지운동을 전개했다. 진각종은 이를 위해 문화원

력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과 문화복지추진제를 실시했다. 또 진각종은 11월 24일 KB부동산신탁과 부동산신탁 양해각서(MOU) 체결 조인식을 갖고 종단 소유 부동산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섰다.

조직도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교구청을 신설했다.

진각종은 스리랑카 내공보 JGO센터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용된 파나두라 캠프(Galsoda Camp)사람들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주민 2000여명을 시술했다.

김원우·남동우·강유신·조용수·이은비 기자

미륵종·일승종, 종단협 가입...총지종, 불상봉안 실험

기타

미륵종과 일승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미륵종과 일승종의 종단협 가입은 3월과 11월에 각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가입종단은 27곳으로 늘어났게 됐다.

관음종은 태허대종사 유교문집 발간, 창종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2004년부터 진행된 개산조 기념사업을 매듭지었다.

또한 종단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사찰 신도회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총지종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올해 초부터 시범적인 불단 장입이 실시됐으며 6월 무렵 사원 내 불상 봉안을 추진하다 내부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불상봉안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한편, 오랫동안 개원이 미뤄졌던 사원들이 문을 열어 총지종은 지역포교 기반을 한층 다져나갔다.

평택으로 총무원을 옮긴 법상종은 올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단을 법인화해 합리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봉안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

원용종은 해외불교 돕기 사업을 꾸준히 벌여나갔으며, 불입종은 1사찰 1봉사단체를 결성하는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나갔다. 보문 원호 법률 본원 대승 열반 여래 대각종도 종단역량 결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지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낄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경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하여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땅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폼은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드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차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합선방식 : 180,000원
- 합선방식 : 145,000원
- 절방식 : 75,000원
- 건강좌욕방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구입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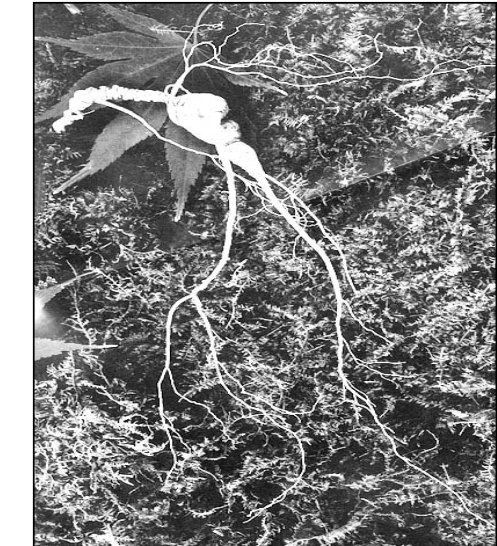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조원 : ㈜에이아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에이아이텍)

송년 및 새해맞이 특별할인가 대 판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함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후에는 上藥 120 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 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는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증,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염,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락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류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액을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효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精進하시용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應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본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